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 1. 거듭난 사람
- 2. 성숙한 신자
-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 교회 설립 3주년을 맞으며 농어촌의 100교회 지원키로

우리 교회 당회는 교회 설립 3주년을 맞으며 민족복음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미자립 교회를 집중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 산발적이고도 수동적인 전도자세에서 전략을 가지고 조직적인 전도활동을 펴기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전환하고, 총회 전도부와 농어촌 전도부의 협력을 얻어 이 일을 진행해 왔

다. 전국의 미자립 교회를 조사하고 그 중 100 교회를 선별하여 내년 예산을 세우는 일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교구별, 연령별로 조직된 남녀 전도회가 이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희망자에 따라 개인적으로도 지원교회와 결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전국에 월 50만원 미만의 헌금으로 교회를 섬기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작은 힘이 큰 도움이 될 교회들이 있다. 설립 3주년을 맞으며 좀 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는 새 교회당을 세우는 일보다는 우선 미약한 기존의 교회를 도와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한 것이다.

각양의 모습으로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한 움직임과 함께 「비전 2000운동」의 열기가 서서히 더해가고 있다. 평끝까지, 때를 일든지 못일든지 일상 생활 중에 항상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전도 생활이지만 평소에 주저하고 망설였던 성도들도 교회 전체가 움직이는 전도와 기도운동에 동참함으로써 더욱 뜨거운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늘은 I, II, III예배후 교구별 노방전도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전교인 전도 주일로 I, II, III 예배가 마친 후 교구별로 모여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영동사거리, 노보텔, 제일생명, 영동시장 등 교회주변을 중심으로 교구별로 개발한 전도전략을 가지고 합심하여 전도활동을 펴도록 한다.

교구별 담당구역과 I, II, III 예배후 각 교구별 인솔자는 다음과 같다.



▶다음 주일은 “전교인 만남의 주일”

다음 주일(23일)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여 한번이라도 참석한 적이 있는 성도는 모두 교회에 오도록 하는 날이다. 장기 결석 중인 성도나 출석을 포기한 성도들을 독려하여 다시금 교회로 인도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혼이 성숙한 신자로 성장해 가도록 돕기 위한 행사이다.

교회학교별, 다락방별로는 100% 출석을 목표로 하고 전화, 편지, 심방 등을 통해 이삭줍기 운동을 펴서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더라도 어색함이 없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돕는다.

다락방별로 전산처리된 명단이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으며 다락방장은 I, II, III부 예배의 출석을 점검하여 「비전 2000 운동」 진행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앞으로 남은 비전 2000운동의 주요 행사 일정

- 10월 16일 - 전교인 개인전도, 노방전도, 축호전도
- 10월 23일 - 전교인 만남의 주일
- 10월 30일 - 전교인 가족 만남의 주일(이산 가족 초청주일)
- 11월 6일 - 친구 초청 주일
- 11월 13일 - 이웃 초청 주일
- 11월 20일 - 총동원 주일, 승전감사예배

▶십이전도 / 지나는 이들에게 따뜻한 차 한잔을 대접하며 찬양으로,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십이전도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듣는다. 교회를 다니고 싶으나 결단하지 못했던 이들의 상담원구가 되기도 한다.(14일 밤 11시 40분 교회 앞)

교구	담당구역	인솔자		
		I부 예배 후	II부 예배 후	III부 예배 후
1, 2	영동시장 주변	최난수 권사 오경수 장로	노영숙 권사 최종시 장로	박순봉 권사
3, 4	교회 뒷편	김명숙 권사	유복달 권사	김윤자 집사
5, 6	논현국교 주변		이영세 장로	홍정호 장로
7, 8	보람은행 뒷편	권영옥 집사 조정식 집사	이신일 권사 김대호 장로	박종민 권사 유윤진 장로
9, 10	노보텔 주변	노문환 장로 이남성 집사	김중수 장로 노송성 집사	윤봉준 장로 최재규 집사
11, 12	제일생명주변	김광신 장로	나희주 장로	김중복 권사



창세기 강해



# 아브라함 언약

(15장 7절 ~ 21절)

이종운 목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面前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많은 언약을 크게 2분해보면 메시아에 대한 언약과 천국에 대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확실한 증거를 요청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증거물을 요청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천사가 세계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을 때, 사가라는 증거를 요청했고 그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병어리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양털을 놓고 증거를 보여 주시기를 요청했으며, 히스기야 왕은 죄를 짓고 병에 걸렸으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십오년 동안 연장받으며 그 증거로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도록 했습니다(열하20:8).

아브라함이 증거를 요구한 데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게 하시기 위함이며,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기다리시는 큰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창세기 6장과 9장에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한 언약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국한된 언약입니다. 그의 후손이란 이스라엘 민족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오늘의 영적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살펴보며 은혜를 기다립니다.

### 1. 일방적인 언약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압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테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18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는데 일방적인 선언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식을 얻지 못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방화하기도 하였으며 제 방법대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의심을 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증거를 원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쪼갠 짐승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약속이 일방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우리의 합의나 타협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워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영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 2. 영원한 언약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약속은 변할 수가 있고, 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불변하시고 영원한 약속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하신 이천년 전의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는 것이고, “너희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하신 말씀은 오늘도 불변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기에 구원의 백성의 자리에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을 보면 그의 권속 중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은 후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받을 땅에 대해 주신 언약이 다시 나옵니다. 여기서 할례는 육신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날까지 유효하다고 했다면 우리도 천국의 시민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3. 은혜의 언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만민의 믿음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을 그 당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불쌍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는 그의 행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도 본래 죄인이었고 쓸모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지켜졌는데 아브라함이 죽은지 40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푸사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킵니다. 즉 창세기에 약속하신 바가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지는데 네세대를 거치는 동안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수없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 순례자 컬럼 ✦

####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천국의 논리로는 이해되지만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는 많이 있다. 가령 오전 9시부터 일을 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찾아 온 일꾼에게 주인은 구별없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는 비유만 보아도 그것은 공평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된 자가 나중이 된다는 결론의 말씀까지 주셨다.

물론 이 비유에서 주인되신 하나님 편에서 문제를 이해하지 않고는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다. 주인과 일꾼 사이의 계약은 지켜졌기 때문에 늦게 온 이에게 일찍부터 일한 이와 같은 노임을 주었다고 불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채권자적 자세를 버리고 오히려 채무자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부름받은 시간의 선후가 아니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를 보시기 때문이다.

목회자세미나 현장 스케치

10월 10일(월) 제2교시 강의 요약

칸트와 그의 저서 『도덕형이상학의 기초』

강사 / 손 봉 호 박사 (서울대)

1. 칸트

임마누엘 칸트는 1724년에 태어나 1804년 까지 살았던 독일의 철학자이다. 그의 철학적 업적은 위대한 것이어서 그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더불어 3대 철학자로 꼽힌다. 서양철학계에서는 “칸트에 동의하든 칸트를 비판하든 철학을 할 수 있으나 칸트 없이는 철학할 수 없다”고 하리만큼 철학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다.

2. 칸트의 철학

칸트의 철학은 종합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칸트 이전의 서양 철학이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등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의 철학자들이 주축이 된 합리론과, 로크나 흄과 같은 영국의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경험론이 쌍벽을 이루며 흘러오다가 각각의 철학에 대한 칸트의 비판과 대안의 제시가 이 두가지 사상을 종합한 것이다. 칸트는 윤리를 살리려면 우선 숙명론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칸트가 제시한 것이 「순수이성비판」이다. 「순수이성비판」에서 칸트는 말하기를 우리의 지식은 형식적인 것과 내용적인 것이 있는데 형식적인 것은 생래적인 것이고 내용적인 것은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했다. 지식이란 형식(이성)과 내용(경험)으로 체득되는 것으로 “내용없는 형식은 공허하며, 형식없는 내용은 무질서하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칸트는 이성의 능력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그 나머지 영역에 믿음과 자유가 설 자리를 만들어 놓았다.

3. 『도덕형이상학의 기초』

「순수이성비판」, 「실천이성비판」, 「판단력 비판」 등의 저서로 유명하지만 윤리학에 대한 칸트의 사상은 「도덕형이상학의 기초(혹은 도덕형이상학 서설)」를 통해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다. 「도덕형이상학의 기초」에 나타난 논지는 다음과 같은 크게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철저한 동기주의 - 그는 “선한 의지 이외에는 선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말로 이 책을 시작한다. 물론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바른 동기만이 선할 수 있다는 그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20세기 독일의 사회학자이며 철학자인 막스 웨버는 결과에 대한 ‘책임의

윤리를 내놓고 칸트를 비판하였다. 칸트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올바른 동기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자율성 - 자율성(Autonomy)이란 단어는 ‘자기 스스로 법이 된다’는 히랍어 어원을 따온 것으로, 자율성이말로 도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칸트는 주장한다. 자신의 감정이나 육체의 욕구, 사회의 영향에 이끌리는 것조차 타율성이 개입된 것이며 당위는 가능성

을 내포한 것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③ 형식주의 - 가언명령(Hypothetical Imperative)은 “만약에 ~ 한다면~ 하라”이지만 이것은 윤리적 명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칸트의 윤리는 자율적 윤리이기 때문이다. 아무 조건이 없는 명령, 정언명령(Categorical Imperative)이 윤리적 명령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정언명령에는 세가지가 있지만 그 중 두가지만 고찰하자면 그 첫째는 “당신의 준칙이 보편적인 자연법칙이 되기 원한다면 그 준칙대로 행동하라”는 것으로 칸트의 이 주장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당신 자신의 인격이나 다른 사람의 인격 속에 있는 인간성을 결코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행동하라”고 하였다. 즉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4. 인간 존중을 위하여

칸트는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대철학은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

기독교 정신은 인간이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기독교는 인간성을 존중하는 종교이다.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올바른 위치에 있을 때 인간이 존중될 수 있다.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돌아보고

아골골짜기 빈 들에도



권영복 집사 (선교위원회 국내전도부원)

추석 연휴가 시작 될 때, 서둘러 고향 길로 차를 몰았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 농촌 교회를 돌아보고 농어촌 교회의 미자립 실태와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였다.

대부분 포장이 안된 시골길이었지만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것라는 생각을 하며 옛날 일들을 떠올려 보기도 했다. 자전거에 앰프와 스피커를 싣고 전도하러 다니던 옛날의 시골 길은 얼마나 험했는지 하루종일 자전거를 타고 다닐 경우

절반은 타고, 절반은 메고 다녔던 기억이 났다.

추석 연휴동안 몇몇 교회를 돌아보며 농어촌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교회의 교역자나 교인을 만나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출석교인수, 헌금 및 교역자 사례비, 지역인구수와 가구수, 앞으로의 계획 등을 조사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우리 교회의 각 전도회와 선교회가 미자립 개척교회를 한 곳씩 지원하기로 한 계획에 실질적인 적용점을 찾을 수 있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역자의 희생에 의해 교회가 설립되고 그 동리의 토속적인 신앙과 대립하면서 핍박가운데 결실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교회는 연약한 여전도사가 절은 두 개나 있는데 교회는 하나도 없는 그 동리를 보고 아골골짜기와 같이 하나님 없는 영혼들이 불쌍하게 여겨져 초가집 방 한칸을 얻어 시작하여 낮에는 집집마다 돌며 굶은 일을 돕고, 무의탁 노인들에게 음식과 함께 말씀을 전함으로 이제 조금씩 결실을 보기 시작한 곳도 있었고, 다 쓰러져가는 건물을 얻어 예배를 드리는 어떤 교회는 땅을 헌납받 고도 교회 건축은 고사하고 유지조차 어려운 곳도 있었다. 어떤 교회는 예수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곳에 한 가족이 헌신하여 마을 전체를 변화시켜가는 곳도 있었다. 본인들은 끼니조차 이룰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오갈데 없는 노인들을 돌보고 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이 생애의 삶을 나그네요 외국인처럼, 순례자의 행진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농촌의 많은 교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다. 몇몇 교회는 건디다 못한 교역자들이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 이웃 교회의 목회자가 오후에 잠깐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기도 한다. 그들의 현실을 직접 보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예수님의 탄식을 직접 듣는 듯했다.

주리고 외면 당하는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은 마치 순교자의 모습이었다. 그들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농촌의 어려운 교회들을 보며 우리의 작은 힘이라도 모아 주님의 복음이 효과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리라는 각오가 새로와 졌다.

# '95년도 당회 부서 발표

## 교회학교 장년부 신설, 열 두 교구 행정구역 분할 조정

우리교회 당회는 내년에 수교할 당회 산하 11개 위원회와 각 부서의 책임자를 발표하였다. 각 위원회와 부서는 11월 중에 조직을 완료하고 11월 초부터 임명식을 갖는다.

### ▶ 당회

- 서 기 유윤진 · 부서기 나희주
- 예배위원회 오정수 · 찬양위원회 노문환
- 교육위원회 정병무 · 교구위원회 이영열
- 전도위원회 박철훈 · 선교위원회 김광신
- 구제위원회 이영세 · 재정위원회 임광식
- 건축위원회 홍정호 · 감 사 김대호
- 동산관리 김태기

### ▶ 부서기관

- 출판국 이영기
- 장학회 이남호
- 한국교회갱신연구원 최중시
- 국제선교와 교회갱신 한국연구원(KIMCHI) 김대호

### ▶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장년부를 신설하여 내년부터는 총 12개의 교회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

#### 각 교회학교 부장

- 탁아부 유윤진 · 유치부 이재권
- 유년부 최중시 · 초등부 나희주
- 중등부 박철훈 · 고등부 정병무
- 대학부 노문환 · 청년부 김광신
- 장년부 이영세 · 소망부 홍정호
- 사랑부 윤봉준 · 새가족부 김대호

### ▶ 찬양위원회(각 찬양대 대장)

- 가브리엘 노문환 · 할렐루야 김광신
- 임마누엘 오정수 · 베레렘 이남호
- 호 산 나 유복달 · 시 은 김중수

### ▶ 교구위원회

기존과 같이 12개 교구이나 4, 5, 6교구와 10, 11교구의 일부 지역을 변경 조직하였다.

### 각 교구의 교구장 및 분할 행정구역

교구	교구장	행정구역
1	최중시	논현, 신사, 청담, 압구정, 삼성
2	오정수	역삼, 개나리아파트, 영동아파트
3	정병무	대치, 도곡, 개포, 일원, 수서, 내곡, 세곡
4	김태기	반포, 잠원, 서초, 양재 (방배)
5	홍정호	사당, 봉천, 파천, 의왕, 수원, 안양, 시흥, 신림(관악구, 동작구)
6	이영세	영등포, 구로, 광명, 인천, 강서구, 양천, 부천
7	김대호	마포, 서대문, 종로, 은평, 벽제, 고양, 일산, 용산, 중구
8	유윤진	성북, 도봉, 노원, 의정부, 동두천, 북양주
9	윤봉준	동대문, 중랑, 미군, 구리, 남양주, 성동
10	박철훈	강동, 하남
11	노문환	송파(잠실, 풍납, 신천)
12	이남호	성남, 용인, 분당

### ■ 우리 이웃 실눈뜨고 보기

## 화제를 당한 『사랑의 집』을 돕자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릴케의 <가을 날>이라는 시 중에 있는 쓸쓸한 한 구절이다. 과일에 단 맛을 더해주는 따사로운 햇살이 아직 남아 있긴는 하지만 아침, 저녁의 쌀쌀함과 구르는 낙엽들이 겨울 준비를 재촉하게 하는 때에 우리 교회 김혜순 전도사와 김선미 권사의 헌신적인 봉사로 이룩한 하남시의 『사랑의 집』은 화재로 집을 잃고 겨울을 앞둔 마음이 초조하기만 하다.

『사랑의 집』에서는 출소자들 중에서 연고자도 없고 노동력도 상실하여 생계의 대책이 없는 이들을 보호하며 복음을 전해왔다. 그런데 지난 9월 25일 주일 밤에 한 할아버지의 실수로 『사랑의 집』에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후원금으로 어렵게 꾸려오던 살림살이들과 집체가 모두 불타 버렸다.

화재 소식을 들은 여러 교회의 성도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조달해 주기 시작했고, 심지어 실, 바늘, 손톱깎기 등 세심하게 마음을 쓰는 눈물겨운 사랑의 손길들이 이들을 위안해 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열 한명의 사랑의 집 식구들은 비닐 하우스에서 기거하면서 점점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마저 온전치 못하여 다가오는 겨울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 지 마음이 무겁지만 하다. 생활필수품이 모두다 부족한 실정이지만 무엇보다도 건물의 복구와 의류가 시급하다.

많은 날들을 어두움 속에서 지내다 새 빛은 찾아온 생명들이 따스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아야겠다.

(문의 / 베데스다 선교회 ☎ 413-3689 김혜순 전도사)

### ■ 목회자 동정 ■

- 이종윤 목사는 10월 20일 오전 7시 민자당 기독교회 조찬기독교회에서 설교한다.
- 10월 20일에 연목회(회장: 이종윤 목사) 월례 신학 모임이 우리 교회당에서 열린다. 이날에는 맹용길 교수(장신대)가 『교회의 윤리적 책임』이라는 제하의 강연을 한다.
- 이종윤 목사는 10월 21일에 연세대 원주캠퍼스 추수감사예배에서 설교한다.

###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Y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대전 극동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일 오전 8시 ~ 8시 30분
-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우리 교회 각 부서가 조화와 연합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2. 농어촌 교회들을 위하여
3. 태신자를 위하여

### 비전 2000기도제목

- 복음 전할 기쁨과 사명을 주옵소서.
- 복음전할 기회와 환경을 허락하옵소서.
- 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가 풍성케 하옵소서.
- 북한 땅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될 교회당 건축을 허락하옵소서.
- 한국교회 갱신운동이 복음증거로 확산되게 하옵소서.
- 비전 2000운동으로 다락방마다 부흥되게 하옵소서.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위치

